

현창원 황제 국사
2015년 서울시 7급 한국사 A 책형

안녕하세요. 남부고시학원 황제국사 현창원입니다.



수험생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7급 시험 문제는 9급 보다 살짝 어려웠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시대 분석

문제는 시기별로 적당하게 출제되었는데, 예외적으로 독립운동을 출제하지 않았다.

Table with 2 columns: Era (선사시대, 고대, 중세, 조선, 근대, 현대, 기타) and Count (2, 3, 2, 7, 4, 2).

난도

전체적으로 출제 난도는 상 이었습니다.

3번 - 고려시대 대외항쟁, 트릭 문제

7번 - 조선시대 사서 순서문제, 암기 문제

15번 - 고려, 조선시대 과거제도

18문제는 7급 수준으로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구요. 위 3문제가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워 보였구요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지엽적인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대비

이론서를 깊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론 이상의 문제들도 2~3문제 정도가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낱말의 사실을 꼼꼼하게 기억하시게끔 공부하시구요. 이론서 이상으로 나온 문제들은 문제푸는 스킬을 연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현창원 드림.

2015 - 서울시 7급 - 1.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시대의 유적이 아닌 것은?

옷은 방추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을 줄 알게 되었고 돌로 만든 괭이, 낫 등을 이용하여 조, 피, 수수 등을 재배 하기 시작하였다. 집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역도 있었다.

- ① 고령 지산동 유적 ② 양양 오산리 유적 ③ 봉산 지탑리 유적 ④ 부산 동삼동 유적

정답 : ① - 출처 : 황제국사 p35 - 신석기 시대 유적지

가락바퀴, 농경의 시작, 움집, 빗살무늬토기가 사료에 나와 있다. 신석기시대 사료이다. ① 고령 지산동 유적은 철기시대 국가인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지(고분)이다. ②③④는 모두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2015 - 서울시 7급 - 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한서> -

- 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② 말, 주옥, 모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③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④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정답 : ② - 출처 : 황제국사 p54 - 고조선의 흥망성쇠

고조선의 8조법에 관한 사료이다. ② 부여의 특산물에 대한 설명이다.

2015 - 서울시 7급 - 3. 다음 ㉠과의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있을 때 (㉠)이/가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 둔 군량이 바닥나버렸다.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고 설득한 뒤 관노(官奴)문서를 가져다 불살라 버리고 노획한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 쓰고 적에게로 돌진하니 (㉠)은/는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고려사> -

- ① 귀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쟁하였다. ③ 흥화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④ 산성, 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

정답 : ③ - 출처 : 황제국사 p255 - 고려의 대외항쟁

사료는 몽골의 5차침입때 김윤후가 방호별감이 되어서 충주를 지키는 사료이다. ③ 흥화진 전투는 거란의 2차 침입때 양규 장군이 거란군을 격퇴한 전투이다. 거란의 3차 침입때는 강감찬장군이 승리하였다. ① 몽골의 1차 침입때 귀주에서 박서가 살레타이를 막아 승리하였다. ② 1232년 최우가 대몽항쟁을 결의하며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④ 최씨 정권은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주민들을 산성과 섬에 피난시키는 입보책을 실시하였다.

2015 - 서울시 7급 - 4. ㉠~㉤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Table with 5 columns: Year (475, 532, 612, 654, 668) and Event (백제 웅진 천도, 금관가야 멸망, 살수 대첩, 무열왕 즉위, 고구려 멸망).

- ① ㉠ -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② ㉡ - 백제가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③ ㉢ - 황룡사 9층탑이 건립되었다. ④ ㉤ -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

정답 : ③ 출처 - 황제국사 p93 - 신라의 발전

- ① 장수왕 - 427년 ② 근초고왕 - 박사 고흥 ③ 선덕여왕 - 자장의 건의(643?, 645?) ④ 선덕여왕 - 647년, 상대등 비담과 영종의 반란 발생, 이와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2015 - 서울시 7급 - 5. 다음은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 -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

㉠

㉡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 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서 ...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

- ①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 ② 고구려가 동쪽의 옥저를 복속시켰다.
- ③ 신라는 지방의 행정구역으로 9주를 설치했다.
- ④ 신라가 왜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구려에 원군을 청했다.

정답 : ④ - 출처 : 황제국사 - 삼국의 항쟁

- ㉠ 371년 - 근초고왕의 고국원왕 패사 ㉡ 554년 - 성왕이 관산성에서 김무력장군에게 패사 ④ 399년 - 내물마립간이 경주 쳐들어온 왜 구 격퇴를 위해 광개토태왕에게 원군 요청 ① 천리장성 - 631~647 ② 태조왕 - 옥저와 동예복속 ③ 통일신라 신문왕 - 9주 5소경 정비

2015 - 서울시 7급 - 6. 다음의 행사를 주관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일 간의 화성 행차>

첫째 날 : 창덕궁을 출발해서 시흥에 도착하다.
 둘째 날 : 시흥을 출발해서 화성에 도착하다.
 셋째 날 : 향교 대성전을 참배하고 과거를 실시하다.
 넷째 날 : 현릉원을 참배하고 장용영의 군사를 조련시키다.
 다섯째 날 : 해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베풀다.
 여섯째 날 : 노인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다.
 일곱째 날 : 화성을 출발해서 시흥에 도착하다.
 여덟째 날 : 시흥을 출발해서 창덕궁에 도착하다.

- ①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 ② 초계문신제도를 도입하여 관료들을 재교육하였다.
- ③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
- ④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국정 수행의 편의를 도모했다.

정답 : ④ - 출처 : 황제국사 p435 - 정조의 업적

정조가 수원화성에 다녀온 기록인 <원행유묘정리의궤>의 자료이다. ④ 대전회통은 고종때 편찬된 법전이다. 정조때는 대전통편이다.

2015 - 서울시 7급 - 7.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오주연문장전산고> ㉡ <만기요람>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연려실기술>
 ㉤ <동의보감>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② - 출처 : 황제국사 p566 - 백과사전류 등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중종, 이행 ㉣ <동의보감> - 광해군, 허균 ㉤ <연려실기술> - 정조, 이극익 ㉡ <만기요람> - 순조, 심상규 ㉠ <오주연문장전산고> - 현종, 이규경

2015 - 서울시 7급 - 8. 백제의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무령왕이 묻힌 관의 재료는 양나라에서 가져온 금송이다.
- ③ 칠지도에는 백제왕이 왜왕에게 보낸 칼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 ④ 목책과 우물, 사당 등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 시기에 축조되었다.

정답 : ② - 출처 : 황제국사 p177 - 백제의 미술(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백제가 중국 남조 양과 일본과 교류하고 있던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양나라의 벽돌무덤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며, 무령왕과 와비의 관은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관이다.

2015 - 서울시 7급 - 9.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변경하였다.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토지 1결당 쌀 12두만 납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목, 동전 등으로 대신 하도록 하였다.

<보기>

- ㉠ 재정 감소분을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 ㉡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 ㉢ 인징, 족징 등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 ③ - 출처 : 황제국사 p455 - 조(공납, 대동법)

대동법과 관련된 사료이다. ㉡ 대동법을 주관하기 위해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 대동법은 부과기준이 토지(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지주들의 반대로 전국화 되는데 100여년이 소요되었다. ㉠ 영조때 균역법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소하여, 부족분 보충을 위해 결작, 선무군관포, 해세를 통해 해결하였다. ㉢ 영조때 균역법 - 조선후기 양인후의 부족으로, 남아있는 양인들에게 부과를 이중, 삼중으로 부과하였던 군포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백골징포, 황구침정, 인징, 족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2015 - 서울시 7급 - 10. 고려시대의 역사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초부터 역대 왕의 치적을 기록한 <실록>을 편찬했는데,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 ② 의종 때 김관익이 <편년통록>을 편찬하여 태조 왕건의 가계를 서술하였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 ③ 민지가 편찬한 <본조편년강목>에는 성리학적 역사서술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이승휴는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한 <사략>을 편찬하였는데, 현재는 사찬만이 남아있다.

정답 : ④ - 출처 : 황제국사 p314 - 고려시대 역사서

사략을 저술한 인물은 공민왕때 이세현이다. 이승휴는 충렬왕때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

2015 - 서울시 7급 - 11. 세종 대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시계인 혼의와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었다.
- ②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 사전을 편찬하였다.
- ③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 ④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정답 : ① - 출처 : 황제국사 p586 - 과학기술의 발전

해시계는 양부일구, 현주일구, 천평일구 등이 있다. 혼의는 혼청의, 간의, 간의대라 불리는 천문 관측대이다.

2015 - 서울시 7급 - 12. 밑줄 친 적이 요구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적은 모두 천민 노예이므로 양반, 사족을 가장 증오하였다. 길에서 갓을 쓴 자를 만나면 곧바로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도 양반인가? 갓을 빼앗아 찢어 버리거나 자기가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양반을 욕 주었다. 무릇 집안 노비로서 적을 따르는 자는 물론이요,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적을 끌어다 대며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면천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중략)... 때로 양반 가운데 주인과 노비가 함께 적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접장 이라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 백성이나 재민들도 평민이나 양반과 평등한 예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치를 떨었다. - <오하기문> -

<보기>

- ㉠ 무명잡세를 폐지할 것
- ㉡ 조혼(早婚)을 금지할 것
- ㉢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
-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 ② - 출처 : 황제국사 p644 -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사료 오하기문은 황현이 쓴 야사집이다. 사료는 집강소 시기에 동학농민군의 행동을 보여주는 글로서, 노비문서를 소각하는 등 신분제를 부정하고 평등한 인간 사회관계를 수립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묻고 있다. ㉠ 1차 갑오개혁 ㉡ 갑신정변 신정부강령

2015 - 서울시 7급 - 13. 조선시대 과전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과전은 ㉠ 18등급으로 나누어 경기 지방의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관리들에게 준 토지는 ㉡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 이 토지를 ㉢ 받은 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 공신전은 세습을 할 수 없었으나, 죽은 관료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 수신전, 흠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 ③ - 출처 : 황제국사 p446 - 과전법

정답해설 ㉠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하였다. 고려시대 전시과에서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과전법은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공신전은 세습되었다. 오답 해설 ㉣ 과전은 관리가 죽거나 반역을 꾀하면 국가에 반납하였다. ㉣ 과전은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지만, 수신전(관리의 과부), 흠양전(관리의 고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2015 - 서울시 7급 - 14. 발해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국 직후 신라와 협력하여 당 세력을 몰아냈다.
- ②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 평양을 남경으로 삼았다.
- ③ 황상 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황제국가임을 내세웠다.
- ④ 당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 자칭하였다.

정답 : ③ - 출처 : 황제국사 p115 - 발해

문왕의 4째딸인 정효공주묘비에서 "황상은 조화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皇上罷朝興慟)"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발해에서는 문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신라와 협력하여 당 세력을 몰아낸 경우는 없다. ② 그런 사실이 없다. ④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이라 자칭하였다.

15. 고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기의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 승과가 있었다.
- ② 조선 초부터 현직 관리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③ 조선의 과거제도는 191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되었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중인이 과거에 급제하면 교서관에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정답 : ④

문과 합격자의 분관(수습기간)은 출신가문(문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즉, 중인이거나, 한미한 집안 출신인 경우, 교서관(책 펴내는 곳)에 분관을 받았고, 이 경우 평생을 미관말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좋은 문벌 출신은, 성균관, 승문원에 배당 받아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균관, 승문원에 배당받은 자들은 실직도,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른바 청요직에 배당받아 홍문관 부수찬, 박사, 춘추관 기사관 등으로 일할 수 있었다.

①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무과가 시해되지 않았다고 본다. ② 국초 현직관리는 소과는 참하관 이하, 대과는 당하관 이하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으나, 1472년(성종 3) 이후부터 소과는 정5품 통덕랑(通德郎) 이하, 대과는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다. 그리고 종친에게도 국초 과거응시를 허용하였으나, 1471년부터는 금하였다. ③ 과거제도는 1차 갑오개혁때 폐지되었다.

분관
조선 시대에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속시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는 일. 분관하는 데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로 적어, 박사(博士)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케 함. 여기서 3점을 얻으면 괴원(槐院) 곧 승문원, 2점을 얻으면 국자(國子) 곧 성균관, 1점을 얻으면 윤각(芸閣) 곧 교서관에 보내는데, 이것을 다시 도제조(都提調)와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조(吏曹)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삼관에 배치시킴. 그리고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후방(後榜)을 기다리는데, 이를 미분관인(未分館人)이라고 함.

2015 - 서울시 7급 - 16.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 ㉠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 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 ㉡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다.
- ㉢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 대한 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졌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㉔ - 황제국사 p702 - 일제의 주권침탈기

- ㉓ 제 1차 한일협약(1904. 8) : 고문정치 - ㉔ 을사조약(1905. 11) 과 통감부 설치(1906. 2) - ㉕ 정미7조약의 부수각서로 군대해산 (1907. 8. 1) - ㉖ 경술국치(1910. 8. 29)

2015 - 서울시 7급 - 17. 다음의 선거 벽보가 사용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 ②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었다.
- ③ 부정선거로 자유당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 ④ 사사오입 개헌 이후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였다.

정답 : ③ - 출처 : 황제국사 p881 - 이승만의 장기집권시도

1954년 이승만이 정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 하였다. 이에 따라 1956년 있었던 3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현된다. 대통령 후보에 자유당에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이 출마하였다. 선거운동 중 신익희가 뇌일혈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에 이기붕, 민주당에 장면이 출마하였는데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2015 - 서울시 7급 - 18. 광복 후 ㉑과 ㉒의 주장을 한 사람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㉑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 ㉒ 연합성 신민주주의

- ① ㉑ 안재홍 ㉒ 백남운
- ② ㉑ 김규식 ㉒ 여운형
- ③ ㉑ 안재홍 ㉒ 여운형
- ④ ㉑ 김규식 ㉒ 백남운

정답 : ① - 출처 : 황제국사 p809 - 민족사학

㉑ 안재홍 -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에 간행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 만민 공생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주창하여 당시 통일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중도우파적 견해를 대변하였다. ㉒ 백남운 -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글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론(모택동의 주장, 해방 후 지주·자본가들과 손잡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을 주장하였다.

2015 - 서울시 7급 - 19.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길동 :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 경찰에게 잡혀가서 태형을 당하였다고 하네
- 수일 :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제복을 입고 칼까지 차고 수업을 하고 있어.

-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②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 ③ 배재 학당과 이화 학당이 설립되었다.
- ④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다.

정답 : ㉔ - 출처 : 황제국사 p726 - 무단통치기

헌병 경찰제, 조선 태형령, 교사와 공무원의 제복, 칼 착용 - 모두 무단통치기의 상황이다. ㉓ 1차 조선교육령 : 1911 ~ 1922 ㉑ 경성제국대학교 : 1924 ㉒ 배재 학당, 이화 학당 : 1886 ㉔ 내선일체 - 민족말살통치기

2015 - 서울시 7급 - 20. 밀줄 친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8년 5월 10일, 마침내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 ①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국민이 이 선거의 투표권을 가졌다.
- ②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였다.
- ③ 이 선거를 앞두고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규식은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 ④ 제주도에서는 이 선거에 반대한 세력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정답 : ① - 출처 : 황제국사 p865 - 5·10총선거

사료는 5·10 총선거에 관한 사료이다. 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보통 선거에 따라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었으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제헌 국회 임기는 2년이였다. ③ 5·10 총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남한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이 압승을 거두었다. ④ 제주도 4·3 사건 -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일어났다. 진압 중에 반란과 관련 없는 제주도 민중들이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황제국사 에듀스파 홈페이지. : 무료제공



현창원 필기노트
음성강의 무료제공
사료특강 무료 제공